

모트렉스 "1분기 최대 실적"...매출액 1,461억 원, 영업이익 150억 원

- ▶ 연결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1.5%, 영업이익 52.8%, 당기순이익 48.6% 증가
- ▶ 주력 제품인 인포테인먼트 판매수량 증가, 마진율 개선 효과로 실적 성장 지속

[2023-05-10] 모트렉스(대표이사 이형환, 118990)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IVI 전문기업 모트렉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3년 1분기 매출액 1,461억 원, 영업이익 150억 원, 당기순이익 119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영업이익은 52.8%, 당기순이익은 48.6% 증가하며 모든 부분에서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는 모트렉스 창사 이후 1분기 최대 실적이다.

1분기 호실적의 주요 요인은 ▲주력 제품 IVI의 판매수량 증가로 매출액 확대 ▲물류비와 지급수수료의 감소에 따른 이익 개선 ▲자가양산 비중 증가에 따른 제조고정비 커버로 이익률 증가 ▲수출업 특성상 달러 강세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 ▲자회사 전진건설로봇의 실적 증대 등으로 꼽힌다.

회사 관계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환율 변동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재료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계속해서 호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직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기반 모빌리티) 자율주행프로젝트,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 등이 가시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모트렉스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건설기계장비 및 특장차를 제조하는 전진건설로봇은 북미지역의 건설기계 수요 증대와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의 건설경기 호조에 따라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모트렉스 이형환 대표는 "주력 제품의 판매 증가와 마진율 개선을 통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향후 PBV, 전기차 충전기 등 신규 사업 본격화를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1. 분기 비교표

억 원, %

구분	2023년 1Q	2022년 1Q	
	당기 실적	전년 동기 실적	YoY
매출액	1,461	1,309	11.5
영업이익	150	98	52.8
당기순이익	119	80	48.6

주) 연결 기준

▣ 자료문의 : 모트렉스 권순범 과장 (070-4892-6061)
IR큐더스 황호연 매니저 (070-5068-6363)